



매화 닮은 삶, 사람 같은 매화



〈14〉 오견규-화순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땀골 쑤시는 한기를 견지 않았다면 코끝 찌르는 매화향기 어찌 얻으리.
‘항백선사당’

지난 봄, 가까이 지내는 작가에게서 전시회를 잘 마쳤으며 안부 전화가 왔다. 일반적으로 전시기간이 일주일 정도지만 그의 초대전은 한 달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여러모로 혼자 할 일이 많아서 고생했다며 위로를 건넸다. 통속적이지만 멋지게 작품이 몇 점 팔렸으며 빼놓지 않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그저 전하태평이다. 작품 판매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수고라고는 첫날 오프닝 때와 작품 철수하러 간 날, 이를 뿐이었다며 웃기만 한다. 덧붙여서 이번 전시회에는 숨어 있기로 했다한다.

그래! 그림 그리는 일은 고독과 벗하는 일이다. 숨어서 홀로 고뇌가 쌓여야 작품이 탄생한다. 불현듯 은자(隱者)들의 꽃 매화가 떠오른다. 아마 그도 오랫동안 매화만 그리더니 매화를 닮아가는 것일까? 나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더디게 살아가며 오직 작품에만 매달리는 작가들에게 그런 상상을 해본다.

오래전 이야기다. 스승께서 시골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맨 먼저 매화를 심으셨다. “매화

는 한평생 चु케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단다 (梅一生寒不賣香 조선 중기 ‘신희’). 그것이 진정한 화가나 선비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러니 곁에 두고 친구 삼아 함께 살아야지!” 하시면서 살림집 뜰 앞엔 백매, 화실 문 옆엔 홍매를 심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도 매화 한 분(盆)을 주셨다. “자네는 홍매를 좋아하니 홍매를 골랐다고 하신다. 나도 선비가 되어보겠다고 당차게 마음먹고 배란대를 치우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놓고 신주 모시듯 했다. 그런데 어찌 할까? 내 사주에 화기(火氣)만 왕성한대니 몇 달 못 넘기고 말라 죽고 말았다.

고백하건데 예전에도 대나무 한 그루 갖다 놓고 선비 흉내내다가 죽인 적이 있었으니 나무를 죽인 전과 이범이 되는 셈이다. 비록 선비는 매화를 닮아야 한다는 사고(思考)가 동양의 전통적 심미관이라 해도 흔탁한 세태일 수록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아찔든 나는 선비 흉내조차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학창시절 영재 소리를 듣고 출세하더니 한법도 지킬 줄 모르는 법랑도 있고 명품 가방을 몰래 받다가 쇠고랑 찬 나리도 보았다. 예로부터 매화가 선비에 자주 비유된 까닭은 찬눈과 흑독한 바람이 쳐도 꽃을 피우는 생태적 특성 때문이다. 선비 또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떨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고결한 정신을 간직하고 삶에 투영하기 때문이다.

겨울이 깊어지고 설날도 저물쯤이면 봄을 기다리는 이들은 ‘탐매’니 ‘심매’니 하며 어디쯤 매화가 피었는지 인터넷을 뒤적이며 소식을 찾아본다. 작가들도 덩달아 배낭을 꾸리고 집을 나선다. 평소 사연이 깊은 유명 매화를 찾다보면 먼저 온 이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린다. 카메라를 연신 만지작거리거나 스케치 삼매경이다.

‘탐매’는 당나라 시인 맹호연(689-740)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춥고 눈 내리는 겨울날, 봄소식을 기다리며 매화를 찾아 나선 탈



속한 선비의 모습을 그렸다. 이후로 후세 사람들이 따라했다. 작가들이 매화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만 전해 주는 일에 불과하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에 담는 이유와 의미는 매우 하찮은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매화는 홀로 핀다. 몸은 마르고 수척해도 권세가나 부잣집 마당은 웬지 어울리지 않는다. 선방(禪房)의 호젓한 적막이나 학덕 높은 이의 명호를 딛 서원의 한켠이 제격이다. 언 땅에 꿇듯이 서서 꽃망울에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를 들어보자. 세상이 쩡쨍 언 겨울이어도 홀로 청정(淸淨)하다. 단 둘이 마주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다가오는 봄, 고요한 잠행 같은 탐매 길에서 매화를 닮은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2018년 雨梅齋에서 오견규

오견규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심사운영위원 역임
-동신대학교 및 남부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제15회 광주시 문화예술상(허백련 미술상)분상
-제1회 대동미술상 수상(대동갤러리)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